

찬 바람을 이겨내고 피는 바람꽃을 찾아서

봄의 전령인 복수초, 변산바람꽃과 너도바람꽃, 그리고 철새 기행을 떠납니다. 변산에서 복수초와 변산바람꽃을 보고 대야수목원에서 너도바람꽃을 만난 뒤 금강하구의 철새탐조를 계획, 공지합니다. 박흥식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녹색세계' 라는 카페에 위와 같은 공지 사항이 떴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찾은 변산반도

2007년에는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많은 야생화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박흥식 선생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따라다니기로 계획하고 있던 중이어서 공지사항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신침을 하고, 가기로 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2월 24일 새벽 4시 55분 새벽의 찬 공기를 가르며 집을 나섰다. 반갑고 그리운 얼굴들, 김상우 교감선생님, 김오문 선생님, 박흥식 대장님을 만나 오늘 첫 대면할 친구들을 향하는 마음들은 모두가 기대와 행복에 젖어 있었다.

아침도 먹는등 마는등 나섰기 때문에 서산휴게소에서의 아침은 꿀맛이었다. 제법 춥고 쌀쌀한 날씨지만 일행 중 한 분이 싸오신 찬밥을 주먹으로 뭉쳐서 볶은 콩가루와 김가루에 묻혀, 덜덜 떨며 즉석에서 쪽죽 찢은 김치를 얹어 먹었던 그 맛은 천하의 일미가 그보다 더 맛있으랴!! 열명의 일행이 두 그릇의 오명 국물에 서로의 숟가락을 넣어서 양보하며 먹던 그 마음은 아마도 식물을 닮으려는 그것이었다.



갈마가지나무

식물닭

변산반도의 식물 및 조류 공부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8시쯤 내소사 바깥마당에 들어서니 어릿광대가 털옷에 털모자까지 쓰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춤추듯이 피었는데 꽃이 핀 채로 콩콩 얼어 있어서 반가운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동시에 일어났다. 광대나 물은 일찍 꽃을 피우려다 보니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꽃망울을 터뜨리지 못하는 폐쇄화가 흔하단다. 옆을 돌아보니 긴 꽃자루위 하늘색 꽃잎 안쪽에 질



벨꽃

노루귀

은 색깔의 줄무늬가 선명한 큰 개불알풀이 지천에 깔려서 떨고 있었다. 이름도 우스운 큰 개불알풀은 열매가 정말 개불알을 닮았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 황새냉이, 벨꽃들도 함초롬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절 안마당에는 소의 등에 안장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길마가지 나무가 꽃봉오리를 막 틔우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한참을 바라보다 대장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이리 저리 한 참을 찾아 뒷산으로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 밝은 분들이 춘란의 꽃대가 보인다고 외치는 곳으로 모두 몰려들어서 보니 낙엽을 포근한 이불삼아 그 속에서 춘란이 여리디 여린 속살의 뽀얀 꽃대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추위에 얼까 조심스러워 주변의 낙엽으로 다시 덮어주며 무사히 꽃을 피우기를 기원했다.

얼음을 뚫고 피어나는 복수초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사진으로만 보던 복수초가 화려한 광채를 뽐으며 많이 피어 있었고, 길고 하얀 털로 덮인 잎이 돌아날 때의 모습이 노루의 귀처럼 보여서 '노루귀'라는 꽃도 앙증맞게 피어서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절 주변이라 꽃무릇이라 불리는 석산인지, 상사화인지 꽃이 없으니 구별이 안 되는 선형의 비늘줄기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변산에서 동네에 들어가지 않고 변산바람꽃을 보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마을로 들어가는데 차는 멀리 세워 두고 할머니의 심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들어가서 찾아보니 역시 그 곳에서는 변산바람꽃이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다.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면서……. 말로만 들었지 처음 보는 꽃이라 보는 순간 감개가 무량하였다. 그 외에도 변산에서 본 꽃과 열매는 회양목으로 착각할 만큼 잎이 비슷하지만 검은 열매를 조롱조롱 달고 있는 팡팡나무, 억센 가지로 무장한 탱자나무, 잎이 무릇과 비슷하지만 잎이 한 장씩 올라오는 산자고, 열매가 낙화산같이 생긴 쥐방울 덩굴, 열매가 젓가락처럼 길게 생긴 꽃개오동 등등을 보고 변산을 떠나 전주로 향하였다.

첫기행에서 만난 행운

덕진공원이라는 곳에 도착하니 연못에는 연밥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피었을 연꽃이 상상된다. 연못을 한바퀴 돌면서 쇠물닭의 재롱, 물까치, 논병아리의 모습과 날개를 퍼먼 하얗게 된다는 흰날개해오라기가 먹이를 기다리면서 우직하게 서 있는 것도 보았다. 좀 움직여 주면 흰 날개도 보고 좋으려면 꿈쩍도 않고 우리들의 애를 태운다. 흰날개해오라기는 보기 드물었는데 첫 기행에서 보았으니 행운이었다. 새벽부터 고단한 일정이었지만 대장의 탁월한 안내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 여정을 끝내고 다음을 기약하며 집으로 향한다.

〈글 / 신금령(서울봉화초 교사)〉



변산바람꽃



흰날개해오라기



복수초